



손우칠의 행복한 富자되기

지난해 종합주가지수가 60% 이상 상승하면서 주식형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있다.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면서 1조원이 넘는 대형펀드들이 생겨났고, 유리자산운용의 스몰뷰티주식형의 경우 2005년 연 수익률이 100%를 넘기며, 투자자들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주식시장이 변동장세인 경우는 어떨까?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2005년 수익률 상위 주식성장형 펀드 14개를 조사한 결과 연초 이후 수익률이 상위 10%를 유지하고 있는 펀드는 단 한개도 없었다.

즉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거의 수익률을 자대로 각종 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 과거 일시적인 펀드의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펀드가 시장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종목별 주가 등락 불구하고 안정 수익 '매력'

실제로 미국의 자산운용회사인 베그드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은 17.2%였고, 주식형 뮤추얼 펀드의 평균수익률은 14.2%였다. 같은기간 자산을 운용했던 268개 주식형 펀드 중에서 11% 인 28개 펀드만이 인덱스 펀드의 성과보다 좋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설정액 100억 이상 기준 성장형 펀드 163개 중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펀드는 19%인 31개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가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의해 해당 종목을 매수 혹은 매도하는 방법으로 운용이 된다면, 인덱스 펀드는 펀드매니저의 판단이 배제된 채 각종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된다.

예를 들어 KOSPI200지수를 추종하

수수료율도 주식형보다 1.5% 이상 낮아 유리 조정땐 매입단가 하락 오히려 큰 수익 안겨

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 위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매수해 해당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 총 보수율은 0.5%~1% 수준으로, 주식성장형 펀드의 총 보수율이 2.0%~2.5% 선인 것을 감안한다면 1.5% 이상 낮다. 즉 1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경우 수수료 형식으로 나가는 돈이 1년에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되며, 장기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장기투자할 경우 주식형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을 것이므로 자금을 장기간 투자해 목돈을 만들려는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혹자들은 주가지수가 하락할 경우 인덱스 펀드는 손실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하락장에서도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드는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장기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절하게 위험에 노출이 되어야한다. 장기간 적립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내가 투자하는 펀드의 매입단가가 하락하는 Cost-averaging effect가 발생하게 된다.

펀드의 기준가가 하락할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펀드의 쪽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이 차후 큰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투자할 경우 종합주가지수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인덱스 펀드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인덱스 펀드=기준이 되는 코스피 지수(인덱스 index)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한 펀드.

원·엔 환율 9년만에 최저수준

車·HDTV 등 日 경쟁품 값싸진 '日製'에 속속 밀려

코트라 '환율변동과 영향' 보고서

원·엔 환율이 9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원·엔 환율변동에 따른 대 일본 및 대 세계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코트라가 작성한 '환율변동에 따른 한·일 수출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에 대해 원화환율이 하락하는 데 비해 엔화환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탈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제품의 대일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원화 평가절상으로 인한 대일 경쟁력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재 관련제품은 출시 후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원화강세로 인해 한국제품의 가격인하 폭은 작고 일본 제품의 가격인하 폭은 한국의 대

일제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환율 등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 쏘나타는 올해 미국 시장에서 지난해 대비 판매가격이 2천~3천달러 인상됐으나 일본 도요타 캠리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이 동일해 원화 강세 및 엔화약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기준으로 미국의 대일 자동차 수입은 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0% 증가했으나 대한 자동차 수입은 3억9천만달러로 28% 감소했다.

미국 HDTV 시장의 경우 지난 7월 현재 큰 가격 변동이 없으나 일본 소니 제품의 가격인하 가능성성이 큰데 반해 한국의 삼성제품 등은 원화강세로 가격을 인하할 수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출통계를 봐도 2006년 3월 기준 미국의 HDTV의 대일 수입은 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했으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9천300만달러로 1.3% 감소했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부동산과세 조세저항 고려 안해"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 주장

참여정부의 부동산과세 정책의 타당성과 성공 여부를 떠나 조세저항 등 세금의 비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성 한국재정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19일 '재정개혁의 정치경제학'(편의) 뿐 아니라 조세저항 등과 같은 비용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조세정책 논의를 보면 이것으로 무엇을 해준다(편의)는 얘기만 들린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과세가 세금의 비용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며 "작년에 올리려

대해 설문한 결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69.5%를 차지했다.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계발을 위해'라는 답변(복수응답)이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아지는 정년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48.4%)이 뒤를 이었다.

공부하는 분야는 '영어'(57.9%), 전문자격증 관련(34.7%), 컴퓨터 관련(21.1%), 기타 외국어(16.8%), 비즈니스 실무관련(16.8%), 재테크 관련(12.6%) 순이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7명

“직장·공부 병행

‘샐러던트’ 생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자기계발을 위해 직장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샐러던트’(saladent)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리커루팅업체 잡코리아가 직장인 855명을 대상으로 '국내 직장인들의 샐러던트 현황'에

함께 일합니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포도에셋 광주지점	2006년 5기 재무설정사 채용	대졸/경력무관	2800~3000	10/21	062-373-7100
대평건설㈜	[관리/영업/자재/경리] 정규직 시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268-8382
신성하이테크㈜	가공기술/CNC선반/VMCT/3차원측정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3	062-952-1441
서울검사㈜	정규직 비파괴검사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23	062-369-0790
㈜코아이아이에스	컴퓨터 유지보수 및 전산 관리 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4	02-2143-5662
남광주농협	은행출납사무원	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27	062-369-9066
㈜오에이전자	통신기기 수리 및 설치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27	062-971-4800
더맨	의류 소핑몰 [더맨코] 직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7	062-654-3727
㈜핫시스	기술영업/분사/광주영업소/책임자급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30	031-495-4381
신원건설㈜	도로및 택지현장 유경험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10/30	02-2242-0180
㈜대창	다이캐스팅 제조 기술자, 작업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3-532-6070
㈜메니페스토푸드시스템	페밀리레스토랑 '일래스카 광주월드컵점'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31-740-9977
㈜미디어월	(주)미디어월 광주 베룩시장 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262-7111
신한유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생산직 정규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44-8485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현대그룹 '현정 은號'

쓸쓸한 취임 3주년

북핵 여파 경협사업 등 쇠약의 시련



북한의 핵실험 이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남북 경협을 이끌고 있는 현대그룹 현장은 회장(사진)이 '쓸쓸한' 취임 3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현 회장은 21일로 돌아오는 취임 3주년을 맞아 주위로부터 축하를 받아야 할 때 북핵 위기라는 쇠약의 악재를 만나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갑작스런 자살로 세상을 등진 남편의 뒤를 이어 2003년 10월 현대그룹의 회장이 될 때만 해도 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현 회장이 '야체' 현대그룹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 회장은 특유의 '똑똑 경영'으로 취임 2년 만에 전 계열사의 흑자를 달성했다.

현대그룹은 작년 매출 6조9천700억원을 기록했다. 2003년에 비하면 28% 증가한 수치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현 회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 더욱 현 회장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그룹 측은 현 회장의 취임 3주년이 되는 21일 현 회장의 기자간담회 등 간단한 기념 행사를 준비했지만 현 회장이 이를 고사해 특별한 행사 없이 취임 3주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핵 장기화땐 성장을 둔화

경기부양책 미리 준비해야”

현정택 KDI 원장 (KDI) 원장은 19일 “미국 주택 버블(거품)이 깨지거나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우리 경제는 4.3%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잘 지켜보아 필요하면 경기부양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KBS1 라디오에 출연,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과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현 원장은 “경기순환상 내년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있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알게 모르게 많이 악화됐다”고 설명하면서 “KDI가 전망한 내년 성장을 4.3%는 국제유가가 내려가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미국 주택 버블과 북핵 등 하방 위험도 적지 않아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대꾸했다.

현 원장은 “KDI는 단기적 경기조절 보다는 서비스업 생산성 상향, 연금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계경제가 경착륙하고 북핵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를 잘 지켜보아 필요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부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北경제 ‘마이너스 성장’

대외무역·농업 위축···9년만에 처음

KIEP·韓銀 전망 내년에 북한 경제는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은 핵 실험에 따른 경제제재를 받아 내년에 대외무역과 농업부문이 위축되면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을 89년까지 플러스를 유지하다 90~98년에 마이너스를 나타낸 뒤 99년 6.2%, 2000년 1.3%, 2001년 3.7%, 2002년 1.2%, 2003년 1.8%, 2004년 2.2% 등으로 다시 플러스 상태를 보였다.

홍의표 KIEP 전문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한 데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적 지원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면서 “국제적 지원이 중단되면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